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

계파별 목표 나올까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후보토론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화, 안상수, 황우여 의원. /연합뉴스

21일 벌어지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세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막바지 득표전을 벌였다.

조반 안상수, 정의화 후보 구도 로 출발한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구도는 황우여 후보가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함에 따라 크게 흔들리며 막판까지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차 투표 과반수 나올까=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170명) 과반 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경선은 바로 종료 된다. 일단 친박(친박 근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 후보 측은 2차 투표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 후보가 친박계 표 가운데 45표, 친이계 표 가운데 20표, 중도성향표 가운데 20표 정도를 얻어 재적의원 과반수에 가까운 85표 안팎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반면 안상수 후보 측은 1차 투표에서 80표 정도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친이계에서 70표 안팎의 표를 얻는다 러닝메이트인 김성조 의원이 친박계에서 10여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 경우 2차 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2차 투

표에서 1차 투표에서 갈라진 친이계의 표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화 후보 측은 현재 '50:50:50'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세 명의 후보가 모두 비슷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 정 후보의 측근은 "말 없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파별 행동 통일될까=친이

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의도가 알려졌기 때문에) 친이계 부동표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친이계 내부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뚜렷한 분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행동동일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중도파의 선택은=각 후보들은 친이, 친박 양대 계파 소속이면 서도 계파성향이 달한 의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친이계 후보 2명과 친박카드를 들고 나온 후보 1명이라는 경선 구도상 계파별 표만 가지고는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후보 측에선 황 의원 본인이 황 후보 측에 표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이계는 후보가 2명이어서 표가 분산된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표표는 가능하다. 더욱이 친이계 일각에서 집권 초기인데 벌써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행동 통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친이계의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최경환 카드를 응인한 것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책임을 지

세 후보 접전... 1차 과반득표 힘들듯

중립 성향 의원 선택이 당락 변수

계와 친박계의 표표가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선 친박계는 황 후보 측에 표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이계는 후보가 2명이어서 표가 분산된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표표는 가능하다. 더욱이 친이계 일각에서 집권 초기인데 벌써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행동 통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친이계의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최경환 카드를 응인한 것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책임을 지

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의도가 알려졌기 때문에) 친이계 부동표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친이계 내부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뚜렷한 분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행동동일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중도파의 선택은=각 후보들은 친이, 친박 양대 계파 소속이면 서도 계파성향이 달한 의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친이계 후보 2명과 친박카드를 들고 나온 후보 1명이라는 경선 구도상 계파별 표만 가지고는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후보 측에선 황 의원 본인이 황 후보 측에 표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이계는 후보가 2명이어서 표가 분산된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표표는 가능하다. 더욱이 친이계 일각에서 집권 초기인데 벌써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행동 통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친이계의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최경환 카드를 응인한 것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책임을 지

'5·18묘역 몸싸움' 배후세력 조사

민주당, 내달 남구지역위 당무 감사도

민주당은 지난 17일 광주 남구 지역위원회 일부 당원들이 5·18 묘역에서 강운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향의 시위 및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이어 오는 6월에는 남구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도 나설 예정 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5·18 묘역 몸싸움 파문'과 관련, 향의 시위 배경과 배 후세력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당원들이 신성한 5월 묘역에

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향의 시위와 몸싸움 등 을 벌여 민주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파문의 배경과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 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 관계자도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5월 묘역 몸싸움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 으며 조만간 결과 보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할 것"이 라며 "문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는 광주시당 차원 에서 징계에 나설 방침이며 지역위원장 책임 부분

은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다음달 중으로 남구 지역위 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도 나선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광주 남구 지역위 원회에 대한 당무감사가 6월 중에 실시된다"며 "어 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철 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광주시당의 진상조사 와 중앙당의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강운태 의원의 복당 및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 등도 상당한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정비 부당 인상 토해 내라

서울행정법원, 지방의원 부당이득 반환 판결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비를 인상한 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를 반환하 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0 일 서울 동봉·금천·양천구민 14명이 구의원에 들 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봉급을 돌려받으라며 각 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에서 원 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위법한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주

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세 자치구 의원 42명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모두 8억7천만원이다.

구청별로는 도봉구의원 14명이 1인당 2천136만 원, 금천구의원 10명이 1인당 2천256만원, 양천구 의원 18명은 1인당 1천915만원씩을 반환해야 한 다.

재판부는 "의원 보수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주민조사를 실시했고, 설문 내용에 주민 의 의사를 묻는 핵심 문항을 빼고 인상을 전제로 하 거나 유도하는 편향적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주 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구의원 봉급 중 일부 인) 월정수당을 지역주민 소득, 불가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2007년 12월 이뤄진 인상은 이런 고려사항을 충 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구의원들의 연간 의정비 를 전년의 3천564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올렸 고, 금천구는 3천24만원에서 5천280만원으로, 양 천구는 3천540만원에서 5천456만원으로 각각 인 상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전주엔 서구청장 구정 운영 잘했다" 65%

○광주 서구 주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전주엔(사진) 서구청장이 구정을 잘 이끌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 사됐다.

광주시 서구청은 20일 주 민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5.4%가 '전 청장이 구정운영을 잘해 왔다'고 답 했다고 밝혔다. '잘못해 왔다'고 응답한 주민은 22.3%였다. 구정 운영의 성과가 큰 분야는 '친환 경 녹색생태도시 건설'(20.2%), '지역경제 활성화'(14.2%), '고객만족 현장행정'(14.1%) 순으 로 조사됐다.

또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 의 절반 이상(53.5%)이 '취업 알선과 일자리 창 출'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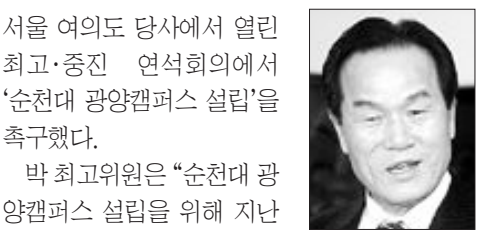
서구 거주환경(경제·환경·교육·문화 등) 만 족도 조사에서는 10명중 7명(70.8%)이 '만족한 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편리한 교통 환경'(32.1%)과 '자연 환경'(27.2%), 교육여건(12.0%)에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호·중앙지구 거주 자의 만족도(83.4%)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서구청이 서울에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것으 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 인트다.

박재순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촉구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순천대 광 양캠퍼스 설립을 위해 지난 해 10월23일 설립인가를 받 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건립에 나항을 겪고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교 과부는 다음달 10일까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순천대는 대학·지자체· 산업체간 실질 협력체계를 갖춘 좋은 모델 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과도 맞다"며 "공과대학을 특성화한 광양캠퍼스는 광양·진주 등 남동경제권의 지속 발전을 견인할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3040 주부반모집 **개강** 6월 1일 (주야 2회반 모집) (현재상당원수중)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5월19일, 6월 4일 / 7월 7일 시행
- 시험종류: 4월 5월 / 7월 9월 시행
- 후시료 7.9급 행정직 6명, 7월 9월 시행
- 채용인원: 7.9급 국가직 2~4명, 지방직 4~5명
- = 대한민국 공직합격의 선구자 無等!! =

부대시설

- 영어 200여명 / 7개반
- 인사관리사 / 2개반
- 합격시 100% 취업보장
- 합격후 100% 취업보장

www.mdgosl.co.kr 222-4560

경찰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만명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합격시스템

-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출이 된 수강생 한화
- 수강료 15% D/C
-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출이 된 수강생 한화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합격비율 1위 교수진

영어 이범희

- 경향 영어 70% 합격률
- 폭박 찍어 삼거 강사
- 강의경력 15년

정철학 오만

- 신경명 경향학 개론 직장
- 남부 경향학 전문
- 광주메가경향학 전문

형택 허문표

- FIRST책권 합법 직장
- 노원진 한국경향학 전문
- 광주메가 학원 전문

수사 차주운

- 강의경력 22년
- 광주순천 메인 전문
- 광주메가경향학 전문

최소필 김현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원명 1년 3회 합격
- 신원명 1년 3회 합격
- 신원명 1년 3회 합격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그린10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정부무상보조사업(100가구 선착순)>

■ 상업용 발전소 용도인 고효율 단결정 모듈 설치

- 3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평균 월당 약3~400kWh(추정)의 전력이 생산가능

태양광발전 설치시 예상되는 월 전기요금 비교표(추정)

기준전기요금(상용용량3kW)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비고
10만원(약 460kWh) 일때	약 4,200원	w 95,800	월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절감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15만원(약 640kWh) 일때	약 12,400원	w137,600	
20만원(약 810kWh) 일때	약 23,000원	w177,000	

*전력 생산량과 설치시 청구 요금, 절감 요금은 추정치로서 일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치자의 자격요건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용' 이고, 전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인 건물의 소유자
- 신청자 구비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한전전기요금1년사용내역 - 표준계약서(인감서1도장날인)

■ 태양광주택 설치시 무상보조금 및 자부담

- 총사업비 중 - 국가 무상 보조 60%, 자부담40%
- 주의사항 -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9년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과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일괄시공(상업용 발전사업 절호의 찬스!!)

■ 영업딜러 모집

2008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우수전문기업 **승지전력(주)** 광주사무소 062)605-9796 여수사무소 010-9605-0091